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 17:30 (총 6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27

13일 충남북부내륙 많은 눈 내린 후, 다음주 한파와 서해안 대설 주의

- 13일 충남북부내륙 2~7cm 많은 눈, 충남남부 비/눈
- 14~15일 충남서해안 2~7cm 많은 눈
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- 눈과 함께 강추위, 14일부터 한파 주의



[12월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13일(일) 충남북부내륙, 14(월) ~ 15일(화) 충남서해안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국민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대전지방기상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-25℃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, 이 찬 공기에 의해 서해상에서부터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대전·세종·충남지역으로 유입되고, 기온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1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벽에 충남북부서해안부터 영향을 받겠고,
- 14일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15일까지도 이 구름대가 서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특히, 이 시기(14~15일)에는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배함에 따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
[13일 충남북부내륙 많은 눈]

- 서해북부해상의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3일 새벽 충남북부서해안, 아침~낮에 그 밖의 대전·세종·충남지역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상하였다.
- 대전·세종·충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이겠지만, 지면 부근의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는 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특히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는 만큼 충남북부내륙을 중심으로 2~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예상 적설(13일)>

- 충남북부내륙: 2~7cm
- 대전·세종·충남(충남북부내륙 제외): 1~3cm

- 또한, 대전지방기상청은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다만, “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비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, 이 경우 지면이 젖어 눈이 예상보다 적게 쌓일 수 있으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[14~15일 충남서해안 많은 눈]

- 14~15일에 충남서해안은 서해상의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하였다.

<예상 적설(14~15일)>

- 충남서해안: 2~7cm

- 또한, “다음 주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자주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, 16일(수) 경에도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덧붙였다.

[추위 전망]

-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4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3일보다 5~10℃ 가량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,
- 이 기간(14~15일)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℃ 이하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, 낮 최고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또한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7~10℃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,
- 다음 주에도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당부하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3일 오후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25~45km/h(7~12m/s)로 강하게 불겠으며 14일 까지도 이어지겠다고 분석하였다.

- (파도) 13일 오전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 앞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1.5~3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 강한 바람과 물결은 15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특히, “서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”고 전하였다.